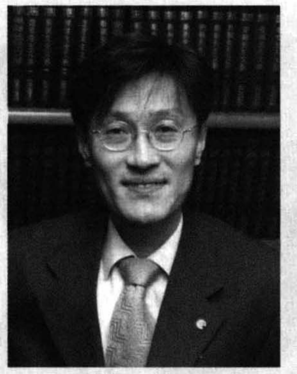
인터뷰_ 한정희 대표

올바른 가치 향한 외곬의 길 이어 "사심 없고 색깔 분명한 출판"



"제가 뜻이 없으면 가업을 물려받지 않았겠지요."

한상하 회장의 외아들 한정희 씨가 경인문화사의 대표를 맡아온 지도 19년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경인문화사에 입사한 한 대표는 오랜 기간 수습과정 끝에 대표에 취임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에서 5년 동안 전임강사를 지내기도 했다. 출판에 관심을 갖고 평생을 영인본 출판에 뜻을 둔 아버지를 틈틈이 도왔던 터다.

"옛 문집의 영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경인문화사를 설립해 영인 출판에 힘을 쏟은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영인본에 대한 가치를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나라의 정사正史는 해독이 돼도 개인의 시문 · 저술 등을 담은 야사野史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사와 야사를 맞춰봐야 비로소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한 회장이 36년 간 영인본 출판에 몸담고 이루어낸 결실은 한국역대문집총서 3,000권. 한결같이 영인본 사랑을 실천해 온 아버지의 뒤를 따른 한 대표는 앞으로 2,000권을 추가하여 총 5,000권을 간행할 계획이다.

"바람이 있다면 기존 3,000권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해독할 사람도, 여유자금도 없는 실정이에요. 수집하는 데만도 10여 년을 들였는데, 제자리와 의미를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인본이 번역돼 나와야 한국 역사가 제대로 잡힐 수 있거든요. 3,000권의 번역비는 개인 기업에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지요."

가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은 출판사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그러나 한 대표는 여느 전문경영인을 능가하는 경영 수완을 발휘해왔다. 그는 "사심을 갖지 말고 영인 출판에 임하라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충고를 항상 되새긴다"면서 "출판사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 터다.

"단순히 하던 일을 이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 큰 재산인 인적 자원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믿었던 분들이 저를 믿어주시니 그 덕분에 좋은 저자와 훌륭한 저술이 경인문화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익을 위해 이 길, 저 길 돌아서는 출판사가 아닌, 가치와 의의를 생각하며 한 길을 걷는 출판사를 꾸려갈 것을 자신합니다."

경인문화사의 한뜻, 영인본과 한국학 연구

영인본(책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복제한 책)은 서적,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작업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그렇지만 고古 문집을 영인하는 것이야말로 역사 기록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상하 회장이 영인본 출판의 한 길을 걸어온 이유도, 한정희 대표가 그 뒤를 이어받은 것도 가치의 우수성과 보존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현재까지 경인문화사는 대표적인 '한국역대문집총서'(1~3,000권)를 비롯, '근세동아세아 서양어자료총서'(1~200권), '최근 북한 오만분지일 지도', '한국지리풍속지총서'(1~400권) 등 수 종이 넘는 영인본을 발간했다. 자료가 개인 소장일 경우에는 지방까지 복사기를 싣고 내려가는 일이 허다했고, 자료 손상의 문제로 소장자를 설득해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처음에는 옛 궁중 서고였던 장서각 소장품을 중심으로 영인작업을 시작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고려대 · 국민대 · 영남대 등 각 대학의 지원으로 소장 도서들을 영인했다. 문집이 있는 곳이면 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을 정도다.

이후 한 대표가 출판사를 꾸려가면서 경인문화사는 제 색깔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나가는데 더해 한국학과 관련한 연구와 발간을 그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 '경인한국학연구총서'이고 학회(연구소)와 공동 기획한 자료집은 '한일관계사료집성'(1~32권, 2003), '미주 국민회 자료집'(1~10권, 2005) 등이 있다. 또한 각종 연구총서를 발간함으로써 지역, 사회, 국사에 관한 폭넓은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창립 이래 굵직한 성과를 이루며 출판행로를 개척한 경인문화사는 이제껏 쌓아온 역할과 위상에 맞게 앞으로도 양질의 연구서 간행에 꾸준할 계획이다. 뜻이 있고 노력이 있는 연구자에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영인본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전문서점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학의 홍보와 보급에 앞장서고, 일본과 미국에 국한돼 있는 해외 거점의 확대와 외국 유수의 연구기관과 연합해 한국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경인문화사의 창립자이며 한정희 대표의 아버지인 한상하 회장은 1933년 황해도 재령 출생으로 집안이 5대 째 율곡선생의 경현서원을 관리해오고 있는 데다 건국대(당시 정치대) 상과 진학 후 읽고 공부할 만한 책이 없음을 느껴 옛 문집의 영인작업을 시작하게 됐다.